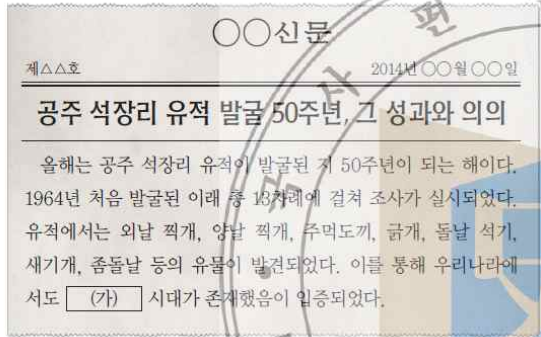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 ③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 ④ 거푸집을 사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 ⑤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정답: ②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공주 석장리, 주먹도끼, ~개로 끝나는 도구(편석기) 등을 통해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은 함경 북도 웅기군 굴포리, 경기 연천 전곡리,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를 비롯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 등의 편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돌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차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편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 먹었으며, 식물의 열매나 뿌리도 채취하여 먹었다. 또,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특히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 담 자리 및 불 댕 자리가 남아 있어 불을 사용하여 난방과 음식을 익혀 먹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 4명, 큰 것은 10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축조된 시기는 계급사회가 출현하는 청동기 이후이다.

④ 한반도에서 청동기가 자체 제작된 증거인 청동 주조틀인 거푸집은 철기 초기(또는 후기 청동기)에 들어서이고, 비파형 동검(요령식 동검)에서 세형동검(한국식 동검)으로 전환되었다.

⑤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 농기구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되었다.

2.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 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토산물을 바쳤다.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에게 절을 맡겼다.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에게 절을 맡기니,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초가 되었다.

- 「삼국사기」 -

- 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②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⑤ 국자감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③

*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

중국 북조 전진을 통한 불교의 수용(해동-우리나라 최초)을 통해 고구려 소수림왕임을 알 수 있다.

4세기 중·후반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에 서북쪽의 전연(342)과 남쪽의 백제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순도 파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이전의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 고자 하였다. 이어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① 고구려 광개토 대왕(391~412)은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임나가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400).

② 압록강 하류에서 요동으로 나아가는 요지인 서안평(현 중국 단둥)을 고구려 태조왕·차대왕(146), 동천왕(224) 등이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미천왕 때에 점령하였다(311).

④ 영류왕(618~642) 때에 당 태종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한편, 고구려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고구려는 라요허 강 주위의 국경선에 천리장성(631~647)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⑤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981~997)의 창설 기록은 성종 11년(992)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국초에 신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중앙의 국립대학으로 국학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성종 11년의 국학은 당제를 참작하여 국자감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본다.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 ② (가)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변상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③ (나) -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생산하였다.
- ④ (나) - 제사장이 주관하는 신성 구역으로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⑤ (가), (나) - 난생 건국 설화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③

* 초기국가 부여와 동예

(가) 부여: 풍속으로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고조선의 8조의 법과 비슷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나) 동예: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①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④ 삼한(마한,진한,변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⑤ 부여의 건국설화는 북부여의 경우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내려와 세운 것과, 탁리국의 동명왕 건국설화가 있는데 주몽의 이야기와 거의 같다. 그러나 동예는 이러한 특별한 설화(천강난생)는 없다.

4. (가), (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의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

<보 기>

- ㄱ. (가) -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ㄴ. (가) -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 ㄷ. (나) -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 ㄹ. (나) -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백제의 웅진(475~538)과 사비(538~660) 수도 시기의 역사적 사실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리다 개로왕 때에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고(475), 문주왕(475~477)이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5세기 후반 동성왕(479~501)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493, 결혼 동맹) 고구려에 대항하였고,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551)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553),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 ㉡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346~375)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여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원왕(331~371)을 전사시켰다. 또,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목라근자를 보내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중국의 동진, 가야, 왜와 외교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황해를 건너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여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혔다(고대 해상권 형성: 서해 직항로 개척).

이와 같은 근초고왕의 업적에 힘입어 왕권이 전제화되어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으며,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375). 그러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5.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가) - 백제 귀족들이 회의를 하던 장소였다.
 ㄴ. (나) - 백제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이다.
 ㄷ. (다) -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ㄹ. (라)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발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백제 사비(부여)의 문화유산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서 능산리 고분,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소산성 등이 있다

(가) **정사암**: 백제는 정사암 회의라는 귀족회의체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여러 부의 힘을 통합하여 국가의 동원력을 강화하는 일 등을 결정하였다.

(나) **부소산성**: 수도 사비를 수호하는 중심 산성으로 주위의 보조 산성인 청산성·청마산성과 함께 도성을 방어하는 구실을 했으며, 평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비원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정림사지**: 미륵사지 석탑과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이 있다.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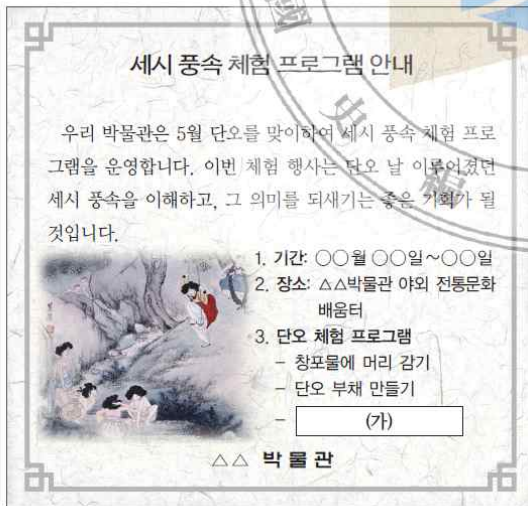
(라) **능산리 고분군**: 1호분에서 사신도 벽화가 발견되었고, 2호분은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고, 능산리 사지에서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이 발견되었다.

㉠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전사한 관산성은 오늘날 충북 옥천이다(554).

㉡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은 웅진(공주) 송산리 고분군 소재하고 있다.

6. (가)에 들어갈 체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치기
- ② 팔죽에 넣을 새알심 만들기
- ③ 각종 부스럼 예방을 위한 부럼 깨기
- ④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 ⑤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만드는 수리취떡 만들기

정답: ⑤

* 단오날의 세시풍속

음력 5월 5일. 삼한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옛날부터 5월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접어드는 달로 나쁜 병이 유행하기 쉽고, 여러 가지 액(厄)을 제거해야 하는 나쁜 달로 보아, 예방조치로서 생겨난 풍습이다.

남자들은 씨름, 태권, 석전(石戰), 활쏘기를 하고, 여자들은 그네 타기, 수리취떡 먹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의 풍습이 있다. 특히 추천(鞭鞭)이라 불리우는 그네타기는 오랜 봉건유습에서 내려온 삼간내외법으로 1년 내내 집안에서 바깥 구경을 못하던 젊은 여인네들이 단오날 하루만이라도 밖에 나와 해방감을 맛보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궁중에서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궁중에 올리고, 공조와 지방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① 삼짇날 : 음력 3월 3일인 이날은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때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화전(花煎)을 먹거나,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겨 먹는다.

②, ③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한해의 풍요와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농사가 잘되고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다리 밟기', '지신(地神) 밟기', '차전놀이' 등을 벌이고, 한 해의 나쁜 액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연줄을 끊어 하늘에 연을 날려 보낸다.

저녁에 대보름달이 솟아오르면 원추형의 나뭇더미를 불에 태우는 달집태우기, 햇불을 땅에 꽂고 합장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의 두렁에 불을 질러 잡귀와 해충을 쫓는 '쥐불놀이'를 한다.

④ 동지(冬至):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설날)과 함께 으뜸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민가에서는 붉은 팔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렸다.

7. 밑줄 그은 '세속 5계'를 행동 규범으로 삼았던 단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귀산 등이 이르자) 원광 법사가 말하기를 "지금 세속 5계가 있으니, 첫째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것이요, 셋째는 벼를 신의로 사귀는 것이요, 넷째는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소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 ②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 ③ 경당에서 한학과 무술을 배웠다.
- ④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 ⑤ 귀족들로 구성되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답: ④

* 세속오계와 화랑도

화랑도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이 조직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을 지도자로 삼고,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 망라한 많은 낭도가 그를 따랐다.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신라 청소년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명산대천을 찾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화랑도는 진흥왕 때 국가 차원에서 그 활동을 장려하여 조직이 확대되었으며(576), 원광은 청소년에게 세속 5계(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를 가르쳐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① 통일 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국학(682)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후, 경덕왕 때에는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이것은 충효 일치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었다.

②, ⑤ 신라의 초기 연맹체의 전통을 유지한 대표적인 제도는 화백 회의였다.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으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으며, 귀족은 이를 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었고, 새 국왕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③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 수도에 태학(372)을 세워 고관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장수왕대)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8. 다음 자료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①

* 돌무지 덧널무덤 천마총

- 신라는 초기에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신라 경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로 5세기 전후로 왕권이 강화되는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끼문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끼문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천마도(벽화가 아닌 배가리개 그림)가 출토된 천마총과 출(出)자형 금관 출토로 유명한 황남대총, 서봉총, 금관총 등이 있다.

- 고구려 고분 벽화는 초기에는 묘주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행렬도·배례도 등 그의 생전의 생활상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4세기 후반의 황해 안악 3호분, 5세기 초의 평남 강서 덕흥리 고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여기에는 사후에도 생전에서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기를 염원하는 계세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 길림 집안(국내성) 지역의 고분 벽화에는 민중의 생활상의 벽화가 잘 나타나는데 무용총의 무용도, 수렵도, 각저총의 씨름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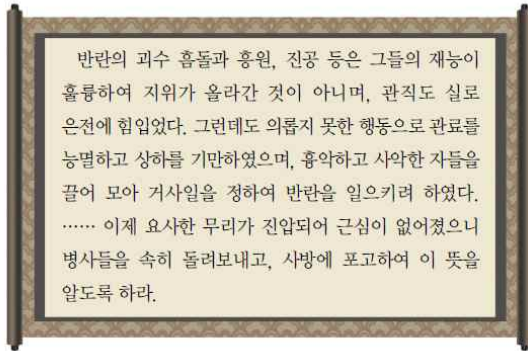
한편 5세기 이후 고구려 지배층에 불교가 파급됨에 따라서 불교적 내세관이 벽화에도 나타났는데,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연화화생도나 예불도가 인물풍속도와 함께 그려지거나 아예 인물풍속도 없이 연꽃무늬만이 사방에 그려지기도 하였다. 5세기 전반의 무용총, 5세기 중엽의 장천 1호분, 산연화총 등 만주 길림 집안의 고분들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어 6세기 이후에는 도교사상의 확산으로 청룡·백호·주작·현무가 그려진 사신도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평남 강서대묘 사신도, 평남 중화군 진파리 1호분, 집안 사신총을 비롯한 많은 고구려 후기의 봉토무덤이 사신도를 벽화의 주제로 하였다.

- ① 천마총 천마도
- ② 강서대묘 사신도
- ③ 무용총 무용도
- ④ 각저총 씨름도
- ⑤ 안악 3호분 인물도

9. 다음 교서를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 ② 관리 선발을 위하여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③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④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 ⑤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다.

정답: ③

*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신문왕

신라 삼국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992) 대에는 강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685).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①, ⑤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경제적으로는 우경을 실시하고,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② 원성왕(785~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④ 신라의 중앙 집권을 완성한 법흥왕은 건원(536)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10.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대가야 유물 특별전

(가)

- 기간: 2014년 ○○월 ○○일 ~ ○○월 ○○일
- 장소: △△ 박물관 기획 전시실
- 관람 시간: 09:00 ~ 17:00

유네스코 '세계 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물 특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정답: ④

* 대가야의 문화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치소지(治所地)의 주 고분군이다. 피장자(被葬者)는 대가야의 최고 지배자인 왕을 위시하여 치소지에 살았던 유력층과 일반 주민 및 멸망 후의 주민으로 추정된다.

이 곳에서 보기의 자료 금관(32호분 출토)과 애기 금동관(30호분 출토), 판갑옷과 투구(32호분 출토)가 유명하여 대가야의 수준높은 금세공과 철기 기술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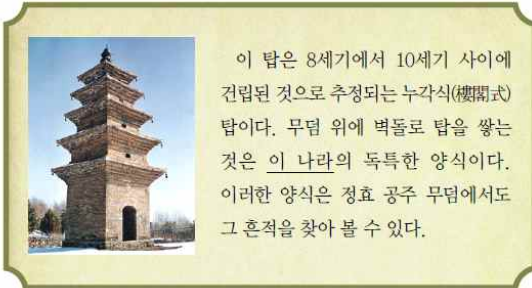
① 금동 대향로(부여 출토): 국보 287호. 백제의 수도인 사비(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이 향로는 도교적 이상향을 표현했으며, 백제의 높은 금속공예기술을 볼 수 있다.

② 천마총 출토 금모자(국보 189호): 금모(金帽)란 금관 안에 쓰는 모자를 말한다.

③ 천마총 출토 금제 접형(나비 모양) 관식(보물 617호)

⑤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국보 154호, 155호)

11.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말, 모피, 인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 ②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④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 ⑤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웠다.

정답: ④

* 영광탑과 발해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인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적인 요소와 당의 요소가 함께 있다.

수도인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내고, 그 안에 궁궐과 사원을 세웠다. 이와 같은 당 문화적 건축물로 길림 장백산 교외에 소재한 '영광탑'이 있는데, 13미터 높이의 5층 벽돌 탑이다.

①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특히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는데,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다

②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왕들이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발해의 중앙의 정치 조직은 3 성과 6 부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의 제도를 수용 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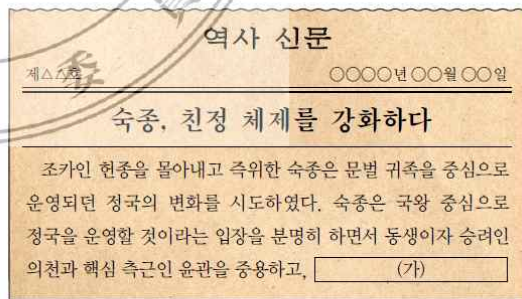
④ 통일 후 신라는 관리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찰 기구인 사정부를 두었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 발해의 감찰기구는 중정대이다.

⑤ 발해는 727년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어받았다."라든지, 759년 문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고(구)려 국왕'이라고 칭한 점이 나와 있어 고구려 계승의식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1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 ㄱ.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 ㄴ. 삼별초를 조직하여 정권 유지에 활용하였다.
- ㄷ.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 ㄹ. 노비인검법을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ㅈ ③ ㄴ, ㅉ
④ ㄴ, ㄷ ⑤ ㅈ, ㄷ

조카인 헌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고려
숙종 대(1095~1105)에는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을 하였다.

그리하여 남경(서울) 건설과 윤관을 통한 적극적인 여진 정벌과 적극적인 화폐유통 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자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예종 때에는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숙종 대의 화폐 유통책은 국가 재정의 확보에 있었으며, 윤관과 대각국사 의천(숙종의 동생)은 대표적인 화폐 유통론자였다. 주전도감(1097)을 설치하고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 삼별초는 1219년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고종 대에 도둑 방지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최씨 정권의 사병이면서도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었다.

㉔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정답: ②

* 의천(1055~1101)과 유관(?~1111)

1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짐은 삼한 산천의 음덕(陰德)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므로 마땅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중간 달에 순행하여 1백 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하라.

—<보 기>—

- ㄱ. 소학 보급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ㄴ. 비보사찰 건립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ㄷ. 양반 사대부의 산송(山訟)에 영향을 끼쳤다.
 ㄹ.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역대 풍수지리설

보기의 자료는 고려 태조 왕건의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서경 중시 정책에 관한 것이다.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 지리적 학설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여 이 곳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설과 도참 사상이 조선 초기 이래로 중요시되어 한양 천도에 반영되었으며,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작용하여 산송(묘자리 송사)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16세기 사람들은 유교윤리 확산을 위해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은 책인 소학을 주요시하였다. 특히 김굉필은 별명이 소학동자로 불리울 정도로 가까이 하였고 조광조, 이황 등 도학 중시의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였다.

㉡ 도선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호국적 사찰인 비보사탑을 지정했는데, 후일 고려 태조는 <훈요10조>에서 도선의 비보사탑설에 의해 지정된 곳 이외는 어디에도 사탑을 건립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 고려 성종 때에 최승로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리고(982),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사회 개혁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였다

14.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3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는 의상이 창건한 사찰이다. 이 사찰의 무량수전에는 흙으로 빚은 대형 소조상이 있는데, 서방극락 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를 항마촉지인의 자세로 구현하였다. 이 불상은 통일 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국보 제45호로 지정되었다.



정답: ②

*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호)

경북 영주에 소재한 부석사(浮石寺)는 의상(625~702)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세운 화엄 10찰 중의 하나로, 사찰로서는 불국사 다음으로 국보급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아미타여래불(서방정토주관)이 모셔져 있는 국보 18호의 무량수전 외에도 조사당(국보 19),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 조사당 벽화(국보 46),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17) 등이 있다

특히 무량수전 내의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소조불상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이 불상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놓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는데, 신라시대의 불상의 특징인 온화함 대신 위엄이 넘치며 긴장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고려시대의 불상으로서는 상당히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① 광주 춘궁리 철불(보물 332호, 현재는 하남 하사창리 소재): 1m 대좌 위에 2.8m 높이의 대형 철불.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철불이다.

③ 철원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국보 63호): 철원 도피안사 소재. 광배는 없고 대좌와 불신만이 남아 있는 신라 말의 철불. '도피안'이란 피안, 곧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이곳의 주불(主佛)로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모셨음은 신라 말의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865년(신라 경문왕 5)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명되어 있다.

④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 삼산관을 쓴 미륵(미래에 올 부처 또는 보살) 보살이 정진과 사색(사유)하는 모습을 형상화 한 이 불상은 날씬한 몸매와 그윽한 미소로 유명하다. 삼국 말기의 양식으로서 신라 또는 백제의 작품으로 불분명하다.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일본 국보 1호)이 이를 본 뜬 것으로 보인다.

⑤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78호): 탑모양의 관을 쓰고 있고, 두 어깨를 덮은 천의(天衣)는 날개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앞면으로 늘어져 무릎 위에서 X자형으로 교차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5.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도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 ②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였다.
- ③ 충렬왕 때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 ④ 공민왕의 정치 개혁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 ⑤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들로 구성되었다.

정답: ④

* 정방(政房)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1225년 자기 집 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국가기관이 되어 권문세족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왕권을 제약하였다.

1298년에 충렬왕으로부터 선위를 받은 충선왕이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詞林院)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나, 조비 무고 사건으로 동년 원에 의해 소환 폐위되며 무산되었다.

그 후 부활(충숙왕)과 폐지(충목왕)를 반복하다, 즉위와 함께 반원자주 정책과 반권문세족 정책을 펼친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이 정방을 1352년 폐지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1356년 다시 폐지).

공식적으로 정방이 폐지된 것은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 직후인 1389년(창왕 원년)에 상서사로 개칭되며 소멸되었다.

①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추 회의). 그러나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되었다. 원의 간섭기 이후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며(1279), 그 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귀족연합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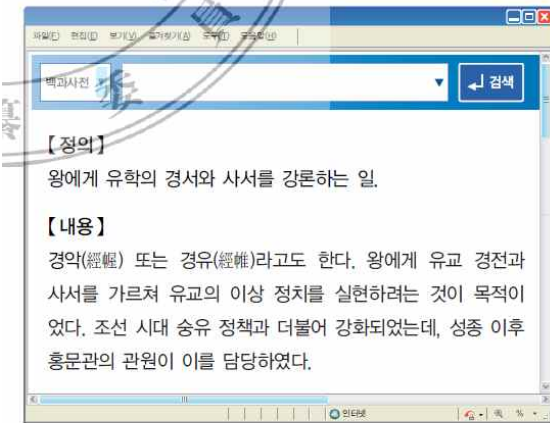
②, ⑤ 고려의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3품 이하)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③ 고려 후기 원의 간섭기 때에는 관제가 개편되어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합하여 첨의부로 6부는 4사(이부+예부->전리사, 호부->판도사, 병부->군부사, 형부->전법사, 공부->폐지) 중추원은 밀직사로 바뀌었고 격도 낮아졌다.

16.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려 때 처음 시행되었다.
- ② 조광조의 건의로 활성화되었다.
- ③ 세조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 ④ 홍선 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되었다.
- ⑤ 대학연의 등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정답: ④

* 경연

조선의 국왕은 하루 세차례의 강의 일정이 있는데, 이를 경연(왕과 신하들간의 토론)이라 하며 일정은 매일 아침에 조강(朝講)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포함하여, 세 번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재는 4서 5경과 대학연의(정치 지침서) 등의 역사 및 성리학 서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강의하였다. 4서 5경의 경우에는 주석집(註釋集)을 정독하였고, 역사서는 통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경연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에서 주관하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다수 경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경연이 단순한 왕의 학문 연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경연을 일시적으로 폐지한 세조(사육신 사건에 집현전 출신들이 많이 연루됨) 연산군이 나 태종, 세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실행한 군주들은 경연을 꺼리는 반면, 세종, 성종, 정조와 같은 호학(好學) 군주들은 경연에 매우 열심이었다. 또한 성학군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경연을 중요하게 여겨, 종종 때에 조광조의 건의로 활성화 되었다.

이 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축소되어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① 고려 예종 대에 관학 진흥을 위하여 청연각, 보문각을 설치하고 당시 문명(文名)이 뛰어난 자들을 소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경연 활동에 참가케 하였다는 것을 통해 경연은 고려 시대부터 이미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우리나라 일관(日官)들은 역법과 천문으로 때를 맞추는 방법에 소홀한 지 오래되었다. 이에 왕께서는 역법과 천문의 책을 두루 연구하여서 신하들에게 대명력, 수시력, 회회력 등을 참고하여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①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처음 간행되었다.
- ② 충신, 효자 등의 행적을 수록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 ③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 ④ 각 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되었다.
- ⑤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에 저술되었다.

정답: ②

*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한 세종 대 (1418~1450)의 역사적 사실

정치: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먼저, 궁중 안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고 집현전 학사를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였다. 뒤 이어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잡게 하였고,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1431~1434).

경제: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마련하고(1444)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문화: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천문학, 농업과 관련된 각종기구를 많이 발명, 제작하였다. 천체 관측 기구로 혼의와 간의를 제작하고, 시간 측정 기구로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었다. 자격루는 노비 출신의 과학 기술자인 장영실이 제작한 것으로,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시보 장치를 갖춘 뛰어난 물시계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1441)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역법이 마련되었다.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1433)을 편찬하고, 의방유취(1445)라는 의학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① 태종 때에는 김사형, 이회 등을 시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를 만들었다. 이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③ 영조 때에 국가적 사업으로 홍봉한 등을 시켜 '동국문헌비고'(1770)가 편찬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④, ⑤ 조선 성종 때에 지리지로 노사신, 서거정 등에 의해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1481). 여기에는 군현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 서거정 등이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1485).

18.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무릇 교육이란 현인(賢人)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 지금의 죽계는 문성공(文成公)*이 살았던 마을이다.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문성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묘(祠廟)를 세우고 (가) 을 설립하였다.

- 「무릉잡고」 -

* 문성공(文成公): 안향

<보 기>

ㄱ. 주세붕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
 ㄴ. 사림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였다.
 ㄷ.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ㄹ.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서원

주세붕의 시문집 ‘무릉잡고’와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을 배향하고 교육한다는 것을 통해 서원임을 알 수 있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1543).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지방 문화의 발전과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며 향촌의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서원은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봉당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이 있어 탕평책을 실시한 영조는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300여 개).

또한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왕권 강화와 민생안정을 추구하던 흥선 대원군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 ㉡ 향교는 관학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대성전: 공자 제향)와 유생의 교육(명륜당)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종6품) 또는 훈도(종9품)를 파견하였으며, 5~7결의 학전을 지급하여 그 수세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19.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사신(史臣)은 논(論)한다. …… 백성들이 도적이 된 원인은 정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 …… 임꺽정을 비록 잡더라도 종기가 안에서 끓어 혼란이 생길 것인데, 더구나 임꺽정을 꼭 잡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은가. …… 나랏일이 날마다 그르게 되어 가는데도 구원하는 자가 없으니, 탄식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다.

- ①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 ② 예송으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 ③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되었다.
- ④ 윤원형을 비롯한 외척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정답: ④

* 의적 임꺽정이 활동하던 명종 대의 역사적 사실

명종(1545~1567)은 이복형인 인종(1544~1545)이 1년 만에 죽자 어린 나이(12세)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종의 외척인 대윤(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소윤(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최대 규모의 사화인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람이 연루되어 큰 희생이 있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 승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교 양종 부활(1551) 및 도첩제와 승과가 부활되었다(1552).

그러나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세와 탐욕에 맞물려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며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62년 처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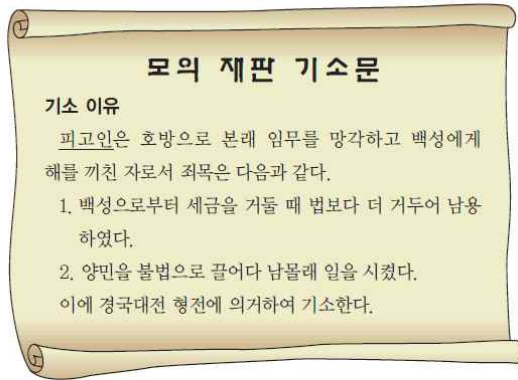
① 임진왜란(1592~1598)은 선조 대(1567~1608)에 일어났다.

② 현종(1659~1674) 대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③ 순조가 즉위한 직후(노론 벽파의 집권)에 대탄압이 가해졌다(신유박해, 1801). 이 사건으로 이승훈,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흑산도, 자산어보 저술), 정약용(강진, 수많은 실학서 저술) 등이 유배를 당하는 등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⑤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정치(1800~1863)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대(순조-헌종-철종)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순조, 철종대 집권)나 풍양 조씨(헌종대 집권) 같은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때에는 왕권이 약해져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의 성행과 삼정(세금행정)의 문란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20. 밑줄 그은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
- ② 관청에 신공(身貢)을 바쳤다.
- ③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 ④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 ⑤ 토착 세력으로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맡았다.

정답: ⑤

* 조선 시대의 향리

경국대전과 육방 중 하나인 호방이 나오는 것을 통해 조선 시대의 향리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토착 세력인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고 신분적으로 중인 취급을 하였다.

또한 향리는 양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류로 보아(사대부가 본래 고려 말 향리 출신이 많음) 생진과 응시 시 향리 자제에 대한 군현 수령의 허가의 규제사항을 정해놓았다.

그러나 지방관아의 행정조직은 중앙관제처럼 이·호·예·병·형·공의 6방으로 나누어 6방 향리들에게 분담되었다. 6방 향리의 여러 가지 직무 가운데 주요한 것은 일반 농민들의 호적을 정리하고 공부와 군역 및 요역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6방 향리 가운데 이방·호방·형방의 수석은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하였으며, 특히 향리의 수반인 호장(戶長)은 수령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수석 향리였다.

①, ④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과 서열)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의·역·율·산). 이들은 주로 잡과를 통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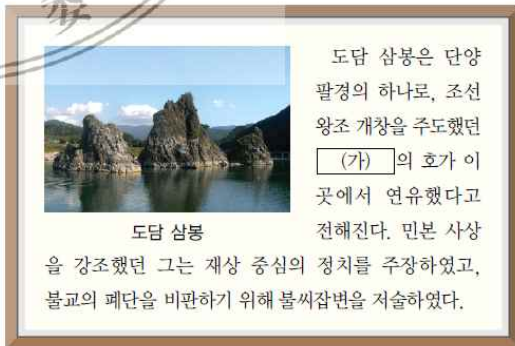
중인은 양반에게서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하며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다(예: 만상 임상옥).

② 노비는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③ 고려의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2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북방에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 ③ 금난전권의 혁파를 건의하였다.
- ④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 ⑤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정답: ②

* 삼봉 정도전(1342~1398)

호가 삼봉, 민본 사상, 재상중심의 정치 불씨잡변 등을 통해 정도전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 중의 하나가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정도전(1342~1398)이다. 고려 말 공민왕 대에 이색을 중심으로 학문적 유대관계를 통해 교류해온 인물(신진사대부)들 중 하나로 신돈 정권기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383년 신흥 무인세력인 이성계와 만나 제휴하였고, 이후 이인임 권문세족 정권과 위화도회군 이후에는 최영 세력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를 지속하려는 이색, 정도전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조준 등과 함께 과전법(1391)을 주도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고 결국 역성혁명의 입장을 주도하며 조선 건국에 앞장섰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초창기의 문물 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조 때(1394)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는데 이 때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또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명과의 갈등(표전문 사건의 당사자) 속에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세자 방책을 후원하다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이방원에 의해 처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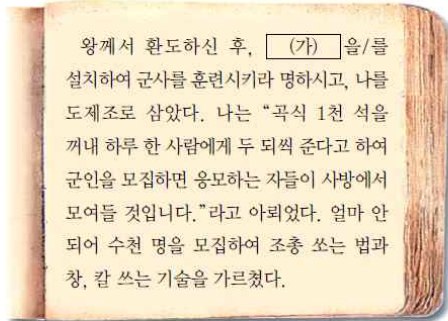
① 세종 때에 김종서 장군을 시켜 여진을 정벌하고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34).

③ 정조 대 남인의 거두 체제공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헌통공(1791)을 주도하였다.

④ 중종 대에 향약을 도입하고 언해 작업을 주도한 조광조, 김안국 등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⑤ 수양대군(세조)이 주도한 계유정난(1453)에 의하여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향보인 등의 고명대신들이 제거되었다.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가.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되었다.
 나.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다.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조직되었다.
 라. 구성원의 대부분이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⑤

* 훈련도감

환도라는 것을 통해 임진왜란 중이고, 조총(포수), 창, 칼(살수) 기술 연마, 급료를 받는 것 등을 통해 훈련도감임을 알 수 있다.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조총), 사수(활), 살수(창칼)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번급료병).

㉠ 정조 때 설치된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영(장용위:1785-→장용영:1793)는 순조 즉위 직후 수렴첨정하며 노론 벽파를 이끌던 정순왕후에 혁파되었다(1802)

㉡ 훈련도감에 이어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1623), 총융청(1624), 수어청(1626)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1682)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23.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허적(許積)의 공초를 보면 모반에 참여했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관직을 몰수하고 고향으로 내쳐 돌아가게 하라.

(가)

송시열은 산림의 영수로서 나라가 어렵고 인심이 좋지 않을 때에 감히 원자(元子)의 명호(名號)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관직을 몰수하고 성문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 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② 반정을 통해 인조가 즉위하였다.
- ③ 위훈 삭제 문제로 사화가 일어났다.
- ④ 이괄의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하였다.
- 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정답: ①

* 숙종 대 경신환국과 기사환국 사이 (1680~1689) 시기의 역사적 사실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붕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 재집권

②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 하던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1623)으로 몰락하고,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③ 중종 때의 사림의 대표적 인물 조광조(1482~1519)는 도학정치를 주장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위훈삭제 등으로 훈구세력의 반발을 사서 기묘사화(1519) 때 죽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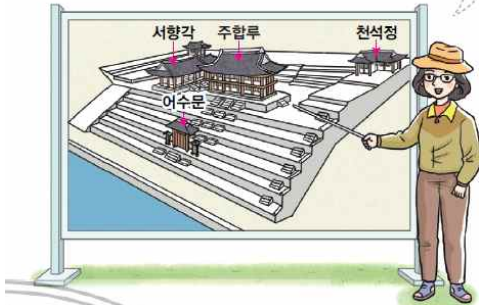
④ 인조 반정(1623) 과정에서 공이 큰 이괄 2등 공신으로 한 것은 이괄의 난(1624)을 불러 일으키고 도성이 함락되고 공주로 피난가 기 까지도 하였다.

⑤ 본래 선조 때에 서경덕 학파와 이항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나, 기축 옥사(1589,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의 주역 서인 정철(세자 건저 문제로 몰락)의 처벌을 놓고서 1591년에 강경론인 북인(조식 계열)과 온건론인 남인(이항 계열)으로 분화되었다.

24.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는 이 왕이 즉위한 해에 세워졌습니다. 1층에 역대 왕의 친필과 서화를 관리하며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문장을 담당하는 하늘의 별인 규수(奎宿)가 빛나는 집'이란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 ①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였다.
- ②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다.
- ③ 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처음 도입하였다.
- ④ 편당적인 인사 조치로 한국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 ⑤ 훈구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사람을 등용하였다.

정답: ②

* 규장각을 설립한 정조의 업적

아버지 사도세자가 봉당·척신정치로 희생당함을 몸소 목격한 정조는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준론 창평)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봉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창덕궁 주합루에 1776년 설치하고, 1782년 강화도에 외규장각 설치)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법전으로는 대전통편(1785)을 편찬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1785년 장용위, 1793년 장용영으로 확대)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람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 대한 전매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사상인(私商人)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상업정책을 반포하였다(1791, 신해통공).

① 고려 말 신진사대부 조준 등의 사전 개혁건의로 시작된 과전법(1391, 공양왕 3년)에서 과전은 직·산관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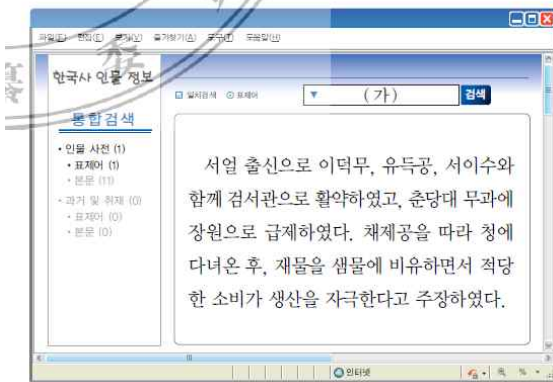
③ 조선 초기 태종(1400~1418)은 양전(토지조사) 사업과 호구(인구조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호패법(신분에 관계없이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착용하는 패)을 실시하였다.

④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한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⑤ 성종(1469~1494)과 중종(1506~1544)은 즉위 초의 훈구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 김종직과 조광조로 대표되는 사람을 각각 등용하였다.

2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 ② 삼한 정통론을 내세운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 ③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 화성 축조에 이용하였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서양 과학 기술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⑤ 우리의 산천을 소재로 한 진경 산수화라는 화풍을 개척하였다.

정답: ④

* 북학파(중상학파) 인물 박제가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상공업 중심의 실학 사상은 18세기 전반의 유수원에 의해 제기되어, 18세기 후반에 북학파라는 이름으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정조의 봉당 뿐만 아니라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등용 정책에 따라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과 함께 서얼 출신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김정희(1786~1856)는 금석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 등을 밝혔다.

② 18세기 이익의 제자 안정복(1712~1791)은 동사강목(1778)을 저술하여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역사관을 벗어난 이익의 역사 의식(마한 정통론)을 계승하였다(삼한 정통론).

③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1794~1796)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⑤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1676~1759)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26.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서울의 재력 있는 관청과 지방의 영진(營鎭) 등은 돈을 많이 저축하고 있다. 돈이 국가 창고에 쌓인 채 아래로 유통되지 못하여 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 「우서」 -

○ 종전에 주조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렸을 리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부유한 상인들이 이때를 틈타 쌓아두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이 없습니다.

- 「비변사등록」 -

- ① 영정법의 시행 배경을 조사한다.
- ② 원납전의 징수 과정을 살펴본다.
- ③ 직전법의 시행 경과를 알아본다.
- ④ 건원증보의 발행 목적을 파악한다.
- ⑤ 전황(錢荒)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정답: ⑤

* 전황(錢荒)

조선 후기에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특히 숙종 때에는 상평통보(1678)가 주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18세기 초부터 동전 부족 현상(전황)이 나타났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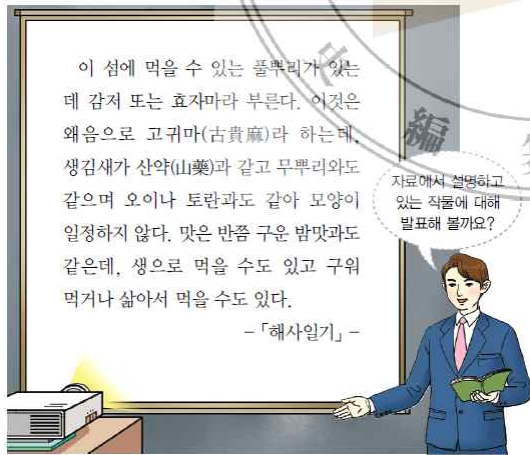
① 양 난 이후 농경지의 황폐와 전세 제도의 문란으로 고통당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연분 9등법(품.흉년에 따라 1결당 20~4두)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②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하자 원납전(원하여 납부한다는 명목의 강제기금)을 징수하고 당백전(상평통보의 명목가치를 100배로 하여 물가상승 야기)을 발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③ 직.산관 관료에게 과전을 지급하는 과전법(1391~1466) 하에서는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어,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 때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④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 철전인 건원증보(996)를 만들게 되었다. 주로 다.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었다.

2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명에 수출된 대표적 특산물이었어요.
- ② 문익점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어요.
- ③ 조선 정부가 구황 작물로 재배를 권장했어요.
- ④ 시험 재배 결과가 농사직설에 소개되었어요.
- ⑤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을 가속화시켰어요.

정답: ③

* 구황작물 고구마

고구마(감저)는 1763년(영조 39) 통신사 조엄이 쓰시마 섬에서 가져와 제주도에서 9년 동안 기르며 연구한 끝에 재배에 성공하였다.

한편 내의(內醫)인 유중림은 고구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증보산림경제>에서 고구마를 심을 것을 적극 권장하였고, 정부에서도 고구마의 식량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정조 22년(1798)에 고구마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재배가 점차 확대되었다.

① 조선의 대명 주요 수출품목은 초기에는 금·은 세공품이었으나 과중한 부담으로 세종 11년(1429) 이후로 면제받고 우(牛).마(馬).포(布).인삼(人蔘) 등으로 대체되었다.

② 고려 말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1363)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목화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④ 세종 대에 정초 등에 만들어진 농서(農書)인 농사직설(1429)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⑤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앙법)이 유행하며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28.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청화 백자를 제작하는 장인
- ②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여성
- ③ 장사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 ④ 엽포의 왜관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
- ⑤ 시사(詩社)를 조직해 활동하는 중인

정답: ④

* 진경산수화가 유행한 조선 후기의 사회

제시 자료는 18C에 활약한 진경산수화 화가인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이다.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양반을 중심으로 유교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 지던 문예 활동에 중인층과 서민층이 참여하여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역관이나 서리 등의 중인층 및 상공업 계층과 부농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졌고, 상민이나 광대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조선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띠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 소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되었다.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시조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를 조직하였다. 김삿갓, 정수동 같은 풍자 시인은 아예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민중과 어우러져 활동하기도 하였다.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탈놀이(탈춤)에서는 지배층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려의 부패와 위선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회화에서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김홍도, 신윤복 등이 그린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하였다. 음악과 무용에서는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었다.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다.

④ 세종 대에는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엽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견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그러나 삼포왜란(1510), 사랑진 왜변(1544) 등으로 폐쇄와 재개를 거듭하며 부산포를 제외하고 폐지하다가, 임진왜란으로 국교 단절이 되었고, 1607년 기유약조로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1607년 두무포->1678년 초량진)

29. 밑줄 그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서양의 사설(邪說)이 언제부터 나왔으며 누구를 통해 전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윤리와 강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어찌 진산의 권상연, 윤지충보다 더한 자가 있겠습니까? 제사를 폐지하고 위패를 불태웠으며, 조문을 거절하고 그 부모의 시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죄악을 따져보자면 어찌 하루라도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 「정조실록」 -

- ① 정여립의 모반 사건에 이용되었다.
- ② 정제두에 의해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다.
- ③ 인간의 본성을 이기론을 통해 파악하였다.
- ④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다.
- ⑤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정답: ⑤

* 천주교

강상을 어지럽힘(윤지충 모친 신주 소각 사건)을 원인으로 일어난 정조 때의 신해박해(1791)를 통하여 천주교임을 알 수 있다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이벽, 권철신, 정약용의 형제들)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서양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1783) 돌아온 이후로 신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

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때에는 신해박해(1791)와 같은 박해가 있긴 하였지만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였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직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다(1801, 신유박해). 이 사건으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기에 탄압이 완화되면서 백성에게 활발히 전파되었다.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서양인 신부가 몰래 들어와 포교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천주교의 교세가 커진 것은 세도 정치로 말미암은 사회 불안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논리, 내세 신앙 등의 교리가 일부 백성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① 1589년에 있었던 정여립 모반사건은 “목자(李)는 망하고 전읍(鄭)은 흥한다” “왕조의 운수가 다해 천명이 타성에게 내려 새 왕조의 출현한다”는 도참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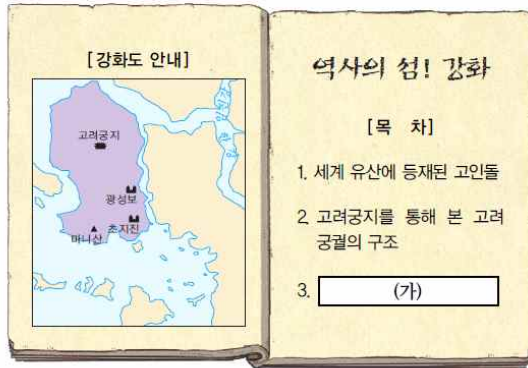
②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으나, 18세기 초에 정제두와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③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성선설)과 우주의 원리(이기론)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④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의 평등사상을 강조하였다.

3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신미양요와 어재연의 분전
- ② 조·일 수호 조규의 체결 과정
- ③ 단군과 참성단의 제천 의례
- ④ 영국의 불법 점령과 포대 설치
- ⑤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사고(史庫)

정답: ④

* 강화도의 역사

강화도는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실이 있다.

특히 1876년 1월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을 일본과 체결하며 근대적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다.

참성단: 강화도 마니산상에 있는 단군의 제천지로서 고려와 조선 초에 초제를 올렸다.

부근리 고인돌(사적 제137호): 이 곳의 고인돌은 돌방의 짧은 변을 이루는 2매의 빗돌이 없는 북방식(탁자식) 고인돌이다. 화순·고창과 함께 2000.1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고려 궁지: 몽고의 1차 침입이 끝나고 최씨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항전

하였다. 후일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개경환도(1270)할 때까지 임시수도 역할을 하였다.

정족산성: 병인양요(1866) 당시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무찌른 곳이다.

광성포: 숙종 때(1679)에 건립되었으며 신미양요(1871) 때에 어재연 장군 형제가 이끄는 조선군은 광성포(진)에서 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초지진: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설치된 진(鎭)으로 1716년(숙종 42) 강화 해안을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신미양요(1871)와 운요호 사건(1875) 때에 미국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전적지이다.

정족산 사고: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과 충주·전주·성주 등 4곳에 사고(史庫)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려, 1603년(선조 36)에서 1606년까지 전주 사고본 실록을 근거로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4부씩 인쇄하였다. 춘추관·묘향산·태백산·오대산·강화도 마니산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여 실록을 보관하였는데, 춘추관실록은 이괄의 난(1624)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마니산 사고의 실록은 1636년 병자호란의 피해를 입어 현종 때 보수하여 1678년(숙종 4)에 가까운 정족산 사고로 옮겨졌으며, 묘향산 사고본은 1633년에 전라도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다.

④ 갑신정변(1884.12)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3년간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31. 밑줄 그은 '그'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그는 오로지 척양(斥攘)의 의리만을 주장하여 전주과도를 죽였고, 외국을 업신여겼으며 해안 곳곳에 포대를 구축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 또 먹을 만드는 곳에 명령하여 먹의 표면에 열두 글자를 새겨 넣도록 하고, 먹의 뒷면에는 '위정척사목(衛正斥邪墨)'이라고 새겨, 사람마다 척화의 의리를 알도록 했다. 후일 구미 각국과 통상하게 되자, 조정에서 논의하여 그 비석을 넘어뜨렸다.

- ① 서궐로 불리는 경희궁을 창건하였다.
- ② 군포 징수 체제를 개혁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 ③ 재정 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모아 탁지지를 편찬하였다.
- ④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⑤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였다.

정답: ②

*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

고종의 즉위(1863)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흥선 대원군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내적으로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경복궁 중건(재정이 부족하여 원납전을 징수하고 땡백전을 발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삼), 비변사 폐지와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의 기능 회복, 대전회통 편찬 등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봉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 온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는 동시에,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개혁(호포제: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하여, 환곡제를 사창제(양반 지주 운영)로 개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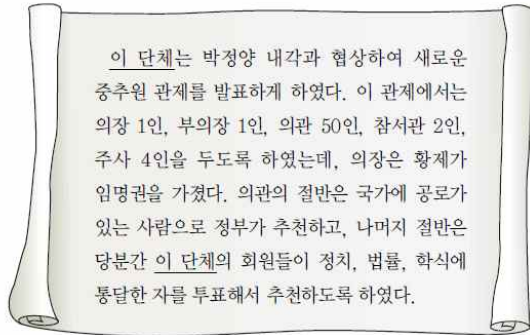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병인양요(1866, 프랑스와 싸움)와 신미양요(1871, 미국과 싸움)를 거치면서 모두 물리치고 전국에 척화비를 확고히 세우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게 유지하였다.

① **경희궁**: 광해군이 1617~1620년에 걸쳐 지은 궁으로 술사들이 왕기(王氣)가 서려있다고 하는 정원군(후일 인조)의 옛집을 몰수하여 지은 별궁이다(경덕궁). 이 곳에서 숙종과 경종이 태어났고, 숙종.영조.순조가 승하했으며, 경종.정조.헌종이 즉위한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심 공간이다.

③ **탁지지**(1788, 박일원): 정조의 명에 따라 호조의 모든 사례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

④ **삼정이정청**: 임술농민봉기(1862)의 진주민란 안락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이 설립되어 이 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32.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 ② 대한민국 국제 선포를 지지하였다.
- ③ 홍범 14조의 반포를 건의하였다.
- ④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 독립협회와 관민공동회

아관 파천(1896.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여(1896.4)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1896.7).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

체로 발전하였다(자강개혁). 또,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민권(신체의 자유, 의회 설립과 국민참정권 추진)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과 협상하여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1898.10)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1898.11).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선구식 입헌 군주제(헌법을 통해 군주의 권한 제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모함).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②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한 대한민국 국제(1899.8)는 독립협회 해산(1898.12) 이후 제정되었다.

③ 홍범 14조 발표(1894.12)는 독립협회 창설(1896.7) 이전이다.

④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 단체 신민회(1907~1911)가 대성학교(1908, 안창호)와 오산학교(1907, 이승훈)를 설립하였다.

⑤ 헌정 연구회(1905년 창설, 입헌군주제 표방)의 후신인 대한자강회(1906년 창설)는 1907년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하다 일제 통감부에 의해 보안법을 적용받아 강제 해산되었다.

3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새 것을 참작하고 옛 것을 기준으로 삼아 문물과 제도를 바꾸었다. …… 8월 16일, 삼가 천지의 신과 종묘사직에 고하고 광무라는 연호를 세웠다.

(나) 통감과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하례사를 낭독하였다. ……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총리대신이 손을 모아 머리 위로 들어 만세 삼창을 하고 문무백관도 일제히 소리 지르며 즉위식이 끝났다.

<보 기>

- ㄱ.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 ㄴ.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관객
- ㄷ. 경부선 철도 건설 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
- ㄹ. 만국 우편 연합 가입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 기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대한제국 광무 정권 시기 (1897.10~1907.7)의 역사적 사실

민비(명성황후)가 시해(을미사변, 1895.10-양)된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러시아 공사 웨베르의 주도하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아관파천, 1896.2)하였다가 약 1년 만에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한 후, 자주 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대한 제국을 수립하였다(1897.10).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면서 연호를 광무(光武)로 하고,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 방향을 제시(갑오개혁의 급진성 배제)하고,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한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1899.8)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양전 사업(토지 조사)을 실시하여 지계(토지 소유증서)를 발급하고,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세우는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식산흥업).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도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결국 러.일 전쟁이 끝나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은 강제 퇴위 당하며 끝이 났다(19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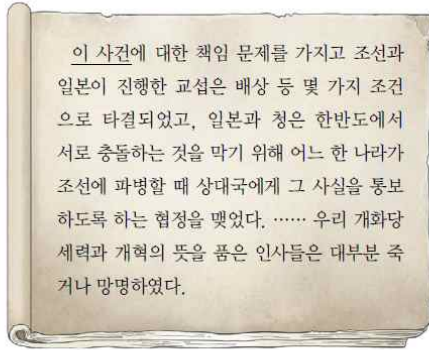
㉠ 1886년 설립된 육영공원은 미국인 교사(헐버트 등)를 초빙하여 양반층 자제들에게 외국어를 비롯한 수학과 정치학 등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1894년 재정난으로 폐교).

㉡ 1908년 극장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우리나라의 남북을 연결할 철도 부설에 주력하여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경부선(1901~1905), 경의선(1904~1906)을 착공, 개통시켰다.

㉣ 1895년에 을미개혁 때에 우편제도가 시작되어 서울과 각 지방에 우체사가 설치되고 중앙에는 통신원(通信院)이 설립되었다. 1900년에 만국우편연합(UPU)에 정식 가입하고 국제우편도 시작되었다.

34.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장소에서 일어났다.
- ②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였다.
- ③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

정답: ①

* 갑신정변(1884.12)

보기의 내용은 갑신정변 관련 후속조약인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에 관한 것이다.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2월 흥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변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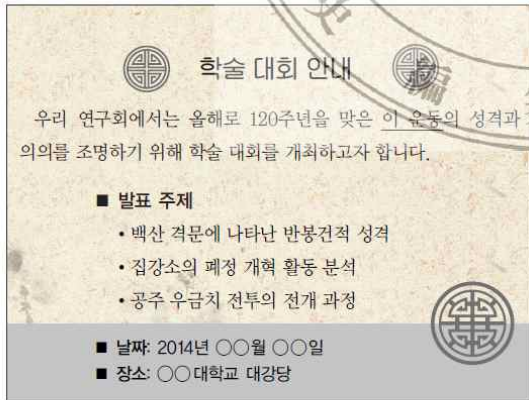
또한,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냈다.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

②, ③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발발한 임오군란은 난병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여 민비를 죽이려하는 등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고종에 의해 다시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하고 사태 수습을 맡게 되었다.

④ 강화도 조약(1876.1)에 따라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차례로 개항하게 되었다.

⑤ 청일전쟁(1894.7~1895.4)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이끌어 삼국 간섭(1895.4.23)을 하여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세력이 위축되었다.

35. 밑줄 그은 '이 운동'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해야 한다.
- ② 원수부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 ④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
- ⑤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백정의 평량갓을 없애야 한다.

정답: ⑤

* 동학농민운동(1894)의 폐정개혁 요구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 12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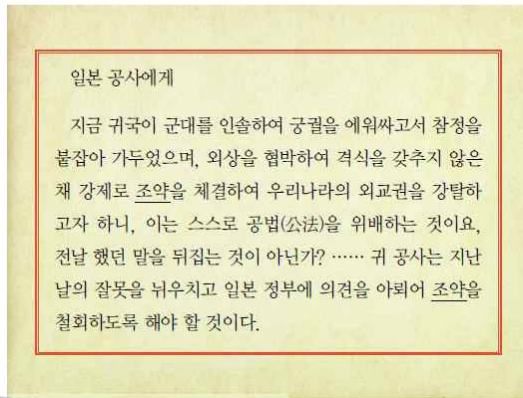
1. 동학도와 정부는 원한을 씻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신분제 폐지 요구).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재정의 일원화로 연결).
9.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과거제의 문제점 제기).
10.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한다.

①, ④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통해 건의한 헌의 6조(1898.10)의 내용

② 원수부 설치는 대한국 국제(1899.6)의 내용

③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오늘날의 부산 영도)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19898년 3월부터 진행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36.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되었다.
- ② 대한 제국 군대의 해산을 규정하였다.
- ③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③

* 을사조약(1905.11)

외교권 강탈의 내용과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통해 '을사조약'임을 알 수 있다.

일제는 러·일 전쟁(1904.2~1905.9)에서 승리 한 후 가쓰라-태프트밀약(1905.7, 일-미), 영일동맹(1905.8), 프츠머스조약(1905.9, 일-러) 등을 통해 한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해 열강의 승인을 얻어낸 후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제 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905.11).

이에 따라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대한 제국의 중요 법안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내정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조약의 무효를 세계열강에 통고하였다. 민영환 등의 애국지사들은 자결로써 항의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다(민종식-충남 홍성, 최익현-전북 태인, 신돌석-경북 평해 등). 조약에 서명한 친일파 대신들을 처단하기 위한 나철, 오기호의 5적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1907). 그러나 특사는 대한 제국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되었으며 열강의 외면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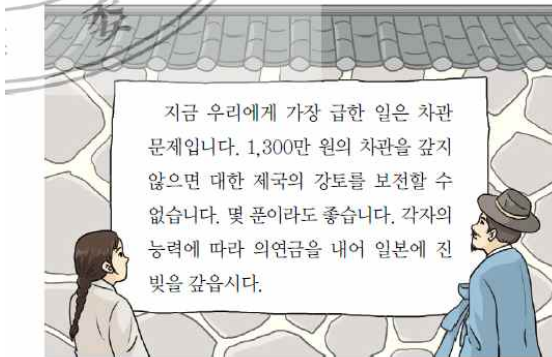
①, ④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일본과의 조약은 한일의정서(1904.2, 군사거점 임의 사용)와 1차 한일협약(1904.8, 재정고문 메가타와 외교고문 스티븐슨 파견)이다.

②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며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1907.7)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부속 조약으로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⑤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8)을 체결하여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한성 상인에게 큰 타격),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지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37. 다음 벽보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황국 중앙 총상회가 중심이 되었다.
- ②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 확산되었다.
- ③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④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 ⑤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전개되었다.

정답: ⑤

* 국채보상운동(1907)

대한제국은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과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일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경제적 자주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경제적 구국 운동).

이 운동은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그 후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연으로,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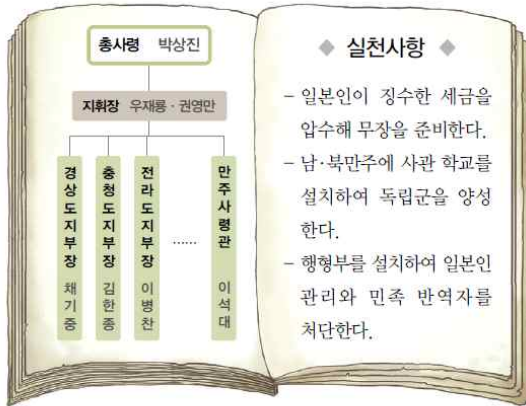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 하던 매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 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강렬하고 자발적인 애국정신이 발휘된 국권회복운동으로 평가된다.

① 개항 이후 조청수륙무역장정(1882)의 체결로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서울 도성의 시전상인들은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황국 중앙 총상회(1898.9) 등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② 사회주의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20년대이다.

③ 1920년대 토산품 애용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8.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공화정체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 ③ 삼원보에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설치하였다.
- ④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의병을 모아 조직하였다.
- ⑤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려 하였다.

정답: ②

* 1910년대 비밀결사 대한광복회

대한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단체로, 채기중의 (대한) 광복단(1913)과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이 중심이 된 조선 국권 회복단(1915.1)이 통합하여 출범한, 즉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을 통합한 비밀결사체이다(1915.7). 총사령은 박상진이고 양반과 상민이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고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한 광복회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독립 의군부(임변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 시도)와는 달리 복벽주의(대한제국 재건)를 극복하고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만주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김좌진 파견).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걷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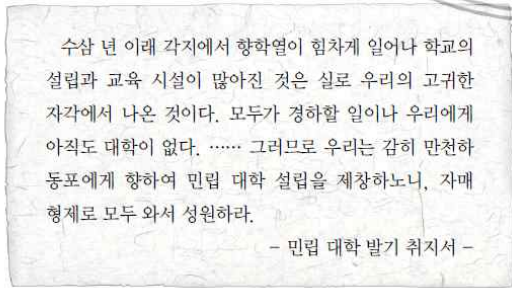
그러나 결국 일제 경찰에게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1918). 이 때 박상진 등 주요 인물이 검거되고 사형당하였지만 체포를 피한 일부 조직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다.

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 대한국민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1920.6)에서 일본군 다수(150여명 사살)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어, 만주지역의 독립군과 민중들의 반일 독립 의지를 크게 고양시켰다.

③ 신민회(1907~1911) 회원들은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남만주(서간도)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39. 다음 자료가 발표되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1897	1910	1919	1926	1937	1945
(가)	(나)	(다)	(라)	(마)	
대한 제국 수립	국권 피탈	3·1 운동	6·10 만세 운동	중·일 전쟁	8·15 광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1920년대 민립대학 설립운동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명목 아래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시행하였다 (1922). 이에 따라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교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초등 교육과 실업 교육에 한정되었으며, 고등 교육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상재 등은 1922년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적인 호응 아래 1923년 3월에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신지식과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민립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은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함께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까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 운동이 쉽지 않았고, 192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일제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설립하였다.

40.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은/는 1909년 나철에 의해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창시되었다. 단군교는 민족 의식의 함양을 도모하고 조선을 독립 국가로 존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정훈모의 친일 행위로 인해 종단에 내분이 일어나자 일제의 탄압을 예상하여 1910년 단군교의 교명을 바꾸었다.

- ①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 ② 중광단의 무장 항일 투쟁을 주도하였다.
- ③ 위정척사를 내세워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기여하였다.

정답: ②

* 민족 종교 대종교

을사 5적단을 이끌던 나철, 오기호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서일 등이 중광단 등 항일 무장 단체를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①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손병희 창시)는 문화적으로 만세보를 창간하였으며(1906), 또한 개벽사를 설립하여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이 유포되어 미국과의 수교가 고려되자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영남만인소를 올려 반대하였다.

④ 미국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배재학당(1885)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힘썼다.

⑤ 경향신문은 본래 1906년 10월 천주교에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발간한 순한글판 주간신문이다.

41. 밑줄 그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월○○일
드디어 오늘 박문국에서 제1호 신문이 발행되었다. 앞으로
한 달에 세 번씩 신문을 발행할 예정인데 외국 소식까지 폭넓게
번역하여 기사를 실으려한 이만재만 바른 게 아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형세를 잘 전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 태산 같다.

- ① 영문판이 함께 발행되었다.
- ②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하였다.
- ③ 일제의 신문지법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 ④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의 성격을 지녔다.
- ⑤ 서민층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

정답: ④

* 한성순보

개화파는 국민을 계몽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박문국을 설치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한문을 사용한 이 신문은 10일 마다 발행되었으며(旬報) 정부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신문은 개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갑신정변(1884.12)의 실패로 “한성순보”는 폐간되었지만, 온건 개화파의 주도 아래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1886).

①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1896.4~1899.12). 은 한글판과 영문판의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한 한글판은 국민들을 계몽하고 정부의 시책을 널리 알렸으며, 영문판은 우리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였다.

② 한성순보를 계승한 한성주보(1886.1~1888.7)는 최초의 상업광고인 세창양행 광고를 게재하였다.

③ 일제에 의해 제정된 신문지법(1907)에 의하여, 내무대신에게 부여된 행정처분권과 보증금제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던 <황성신문>·<제국신문>이 보증금 문제로 폐간되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 친일기관지로 전략하였다(1910).

⑤이종일이 한글로 간행한 “제국신문”(1898~1910)은 서민층과 부녀자들 간에 독자가 많았다. 이 신문은 폐간될 때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여러 차례 정간을 당하면서도 민중 계몽과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42. 다음 역사서를 저술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 「한국통사」 -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통령으로 활동하였다.
- ② 조선어 학회에 가입하여 한글을 연구하였다.
- ③ 실증주의 사학을 추구한 진단 학회를 조직하였다.
- ④ 독사신문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⑤ 여유당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①

* 한국통사(韓國痛史)를 저술한 박은식 (1859~1925)

일찍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서북학회 활동, 황성신문 주필 등의 언론 활동을 하였으며, 1909년 양명학에 토대를 둔 유교구신론을 발표하여 유교개혁을 주장하였고, 장지연 등과 대동교를 창건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15년 신규식 등과 동제사를

결성하였고, 이후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 1925년 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곧 서거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개항기 역사 (1863~1910)를 다루며 국혼 사상을 언급한 '한국 통사(1915) 1884~1919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다루며 국혼, 국백 사상을 역설한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즉, 그는 일제에 빼앗긴 것은 '국백'뿐이요, '국혼'이 살아있으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② 3·1 운동 이후 주시경에 영향을 받은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창립된 한글 연구 단체 조선어 연구회(1921)는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③ 랑케의 실증적 사관에 영향을 받은 이병도(1896~1989)는 1934년 국학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를 설립을 주도하고 진단학보를 발간하며 실증주의 사학을 발달시켰다.

④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1880~1936)는 일찍이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1908)을 연재하여 왕조 사관과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⑤ 정인보.문일평.안재홍 등 민족주의 역사학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43.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인류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않는다. 여성 문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세계인은 이 요구에 응하여 분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 ①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② 조선 여자 청년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③ 통감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해산되었다.
- ④ 신간회와 연계하여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근대적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세웠다.

정답: ④

* 여성 운동 단체 근우회(1927~1931)

3·1 운동을 비롯한 국내외 항일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여성의 의식이 고양되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 단체로는 여성 계몽 운동을 벌였던 조선 여자 교육회(1920), 조선 여자 청년회(1921), 사회주의 성향의 조선 여성 동우회(1924)가 대표적이었다.

여성 단체들은 신간회의 결성을 계기로 ‘민족적 처지의 탈피와 봉건 유제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민족 협동 전선체인 근우회를 출범시켰다(1927.5).

근우회는 기관지 ‘근우’를 발간하고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 농민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야학 설치 등을 통해 여성 계몽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그러나 1931년 신간회가 해산되면서 근우회도 해산되고 말았다.

①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다.

③ 1920년대는 조선 총독부 통치기이다.

④ 최초의 근대식 여성 사립학교 이화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세웠다(1886).⑤

44. (가)~(마)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 외국 기업의 착취에 저항한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 ② (나) -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 ③ (다) - 본격적 노동 운동 조직인 조선 노동 공제회가 결성되었다.
- ④ (라) - 차별 대우 철폐를 위해 백정들이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⑤ (마) -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를 위해 보안회가 출범하였다.

정답: ⑤

* 여러 지역의 근·현대 역사

(가) 원산: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1880년 개항한 원산은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1883년에는 원산에 사립 교육 기관인 원산 학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근대 교육을 하였고, 1905~1914년에는 일제에 의해 경원선이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인 기업의 착취에 저항하여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노동 쟁의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이 유명하다.

(나) 평양: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애용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다) 서울: 1920년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조선 노동 공제회를 결성하였다. 조선 노동 공제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하여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발전하였다(1924). 이후 조선 노동 총동맹은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어 각각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주도하였다.

(라) 진주: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마) 부산: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 근대적으로 개항하였다. 기존의 두모포, 초량에 거류지가 근대적 거류지로 조성되었는데, 일본인 만의 전관 거류지의 특징이 있다.

⑤ 1904년 6월에 일본인 나가모리가 어공원(御供院) 소관의 산림·천택과 황무지 개간권을 이양받기 위해 일본공사관을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넣자, 이에 대해 7월 13일 송수만·심상진 등이 서울 종로 백목전(白木廛)에서 일제의 황무지 개간요구를 저지할 목적으로 보안회(保安會)를 발기하여 반대 투쟁을 펼쳤다.

45. 다음 사설이 작성된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급히 전보가 날아오고 라디오 소리가 들려와 우리 임시 정부의 연합 내각 성립을 고하였다.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을 비롯하여 위원 14명의 귀한 이름을 읽으니 눈물이 폭 쏟아진다. 멀리 계신 지도자들께서는 길이길이 단결하여 우리 독립운동의 실력을 원만히 양성하기를 바란다.

- ①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②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선포하였다.
- ③ 한국광복군을 기반으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④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벌였다.
- ⑤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③

* 5차 개헌 시기(1944~1945)의 임정

임시정부 헌법 변천

- 임시헌장(1919.4: 의정원 규정과 공화정 -> 이후 헌법의 기본틀)
- 통합 임정 1차 개헌(1919.9: 대통령제)
- 2차 개헌(1925: 국무령 중심 내각책임제)
- 3차 개헌(1927: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 4차 개헌(1940: 주석 중심제)
- 5차 개헌(1944: 주석·부주석 중심제)

중.일 전쟁(1937) 발발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인사들은 단일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에 한국 독립당(조소앙), 한국 국민당(김구), 조선 혁명당(지청천)을 해체하고 한국 독립당을 새롭게 결성하였다(1940.5).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1940.9.17).

한편, 태평양 전쟁이 발발(1941.12)하자 임정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임정과 라이벌 관계였던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 참여를 결의하여 1942년 7월에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또, 미국과 협조하여 일본군 학도병 출신(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예상보다 빠른 일제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국,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확실하게 승인받지 못하여, 해방 이후 정부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①, ⑤ 임정 초기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1919),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④ 임시 정부는 1923년 만주의 통의부 의용군과 연결, 직속 부대로 참의부를 구성하였다. 참의부는 지안 현을 중심으로 민정 조직과 군사 조직을 갖추었으며, 농촌 청년들에게 군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연계성이 없고 참의부도 1929년 유일당 운동으로 소멸되었다.

46. 다음 모습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 태형령을 발표하였다.
- ②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였다.
- ③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④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을 강요하였다.

정답: ⑤

* 총동원 체제(1938~1945)

일제는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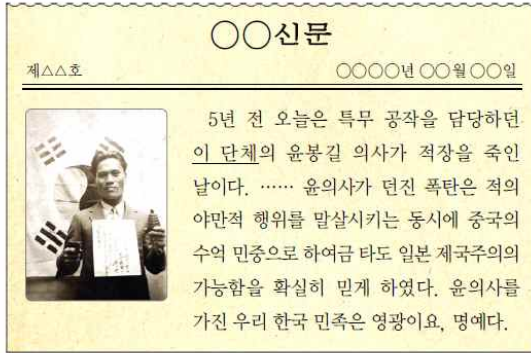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②, ④ 1910년대 일제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고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재정을 위한 지세 확보를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을 실시하였다.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소작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여 몰락을 초래였다.

③ 1920년대에 일제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설립하였다.

47.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약하였다.
- ②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의 의거를 계획하였다.
- ③ 북벌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하였다.
-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 ⑤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훈련을 하였다.

정답: ②

* 윤봉길 의거와 한인 애국단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만보산 사건(일제의 술책으로 1931년 7월에 있었던 만주지역 한,중 농민의 유혈충돌)과 만주 사변(1931년 9월에 있었던 일제의 만주 침공. 일제는 이후 이 지역의 조선인을 우대하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정책을 펼쳐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다) 등으로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10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

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①, ⑤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 김원봉, 윤세주 등이 이끌었다.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혁명주장)을 지침으로 삼아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기로 했다.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이러한 개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5년 몸소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 이 학교에 포진된 공산주의 교수진의 영향을 받아 점차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는 이후 노선을 바꿔 조선혁명간부학교(1932)를 세워 훈련시키고, 정당 조직(후일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후일 1938년 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③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한 독립 의군부는 북벌주의(대한제국 재건)를 추구하였다.

④ 신민회(1907~1911) 회원들은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남만주(서간도)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48.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가)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 체제 정착을 천명한 10·4 선언을 채택하였다.
- (나)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를 발표하였다.
- (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라)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라) - (다) - (가)
 ④ (다) - (나) - (라) - (가)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④

*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합의 문서

7·4 남북 공동 선언(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선언 직후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

(주석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남북 기본합의서(1991):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12월에는 7.4 남북 공동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간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6.15 공동 선언(2000):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1998) 등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김대중-김정일)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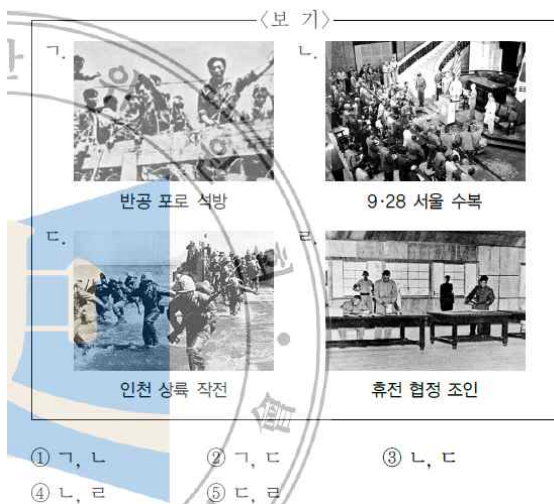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이 방향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의선 복구 사업(2000~2002), 개성 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10·4 정상 선언(2007):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사이의 정상 회담 선언.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 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함

49.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정답: ③

* 6.25 전쟁의 전개과정

배경:

국제 정세 변화 - 중국의 공산화(1949), 주한 미군 철수(1949), 미국의 애치슨 선언(1950. 1: 미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북한의 전쟁 준비 - 소련·중국의 지원(1949년 국공내전의 승리 후 6.25 전쟁 직전까지 조선의용군을 북한군에 편입)을 받아 군사력 증강,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장 봉기 지시, 38도선에서 소규모 무력 충돌 도발, 평화 협상 제의(이주하·김삼룡과 조만식 교환 제의, 남침 의도 은폐)

전개 과정:

• 북한의 남침(1950. 6. 25): 북한군의 서울 점령(6.28) → 유엔군의 참전(1950.7.7) →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 전개 (1950.8~9: 학도병 참전, 다부동 전투, 영천-신령 전투 승리)

•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 인천 상륙 작전 (9.15)으로 전세 반전 → 서울 수복(9.28) → 북진(10.1) → 압록강까지 진격(10.26)

• 중국군의 개입(1950. 10. 25): 흥남 철수 (12.15~12월 24) → 1·4 후퇴(1951: 서울 재함락) → 서울 재탈환(1951. 3.) → 38도선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짐 → 확전을 우려한 소련이 유엔에서 휴전 제의(1951. 6.)

• 휴전 협상 개최(1951.7): 이승만 정부는 분단이 굳어질 것을 우려하여 휴전 반대, 국민들의 휴전 반대 운동 → 반공 포로 석방 (1953. 6.18) → 휴전 협정 체결(1953. 7. 27) →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1953. 10)

50.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출처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14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 진운의 새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 ①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②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의 불황이 심화되었다.
- ③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④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 ⑤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정답: ③

* 김영삼 정부(1993~1998) 때의 경제상황

김영삼 정부(1993.2~1998.2)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1995.6),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1993)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였다(1995.11~12).

또한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시민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한편,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12).

①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2007년 5월에 체결하였다(일부 분야 한정).

②, ④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대에 들어 2차례의 국제 유가 폭등(1973년 1차, 1978년 2차)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⑤ 1950년대 이승만 정권기에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삼백 산업)